

 		2022. 5. 1.(일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농업기술원	보도자료 PRESS RELEASE	친환경연구과장 송정흡 ☎ 760-7210	담당자 고윤정 ☎ 760-7233
		홍보담당자 고희열 ☎ 760-7512	
		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진(웹하드)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후속자료 : 없음	

제주 밭토양 인산 및 칼슘 증가, 비료사용처방서 활용 당부

- 서부지역 유효인산 및 교환성칼슘 과다비율 증가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허종민)은 제주지역 밭 토양의 양분상태 변화 조사 결과, 서부지역에서 유효인산과 교환성칼슘 등에서 적정범위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「밭 토양 조사 사업」은 일반 농경지의 비옥도 유지와 건강한 토양관리를 위해 토양 양분(유효인산, 교환성칼슘 등)의 변화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4년 주기로 도 일원에서 140개 지점을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.
- 2021년 조사 결과, 토양 유효인산은 적정범위(300~550mg/kg)보다 낮은 부족 비율이 55%, 적정범위 보다 높은 과다 비율 31.4%, 적정범위 13.6% 순으로 인산고정능이 높은 화산회토 특성으로 인해 부족 비율이 높았다.
- 그러나 2001년과 비교해 보면, 유효인산 부족 비율은 2001년 63.3%에서 감소했으나 과다 비율은 2001년 15.8%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(구좌, 성산, 표선)의 평균 유효인산 함량은 93mg/kg로 적정범위에 비해 낮았으나 서부지역(한경, 한림, 대정)은 적정범위보다 높은 611mg/kg으로 과다비율이 2001년 34.8%에서 2021년 58.3%로 약 1.7배 증가했다.

- 교환성칼륨 및 칼슘은 과다비율이 각각 67.9%와 55.7%로 2001년 수치와 비교하면 교환성칼륨은 차이가 없었으나 교환성칼슘은 과다비율이 증가했다. 특히 서부지역 과다비율이 2001년 45.7%에서 2021년 62.5%로 약 1.4배 늘어났다.
- 제주지역 밭 토양은 지역 차이는 있으나 유효인산과 칼슘의 과다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.
 - 농업기술원에서는 비료 사용 전(작물 재배 전 또는 수확 후) 토양 분석을 통해 적정 비료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.
 - 토양분석은 농업기술원에 의뢰하면 「비료 사용처방서」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.
- 고윤정 농업연구사는 “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농업환경자원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·분석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